

● 8월 속회: 온 마을을 고치시는 예수님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새 539 장 / 통 340 장)
3. 시작 기도: 속장 또는 속원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6:53-56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뱃을 내렸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55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 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56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6. 본문의 내용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지나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 서편의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마을마다 달려가 병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침상에 누운 이들을 거리 곳곳에 두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 간청하는 모습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기적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공동체적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나았다'고 기록하며,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강조합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몸뿐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과 무너진 관계, 단절된 공동체까지도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지역도, 예수님이 임하실 때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믿음의 실천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7. 나눔

- 1)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마을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예수님께 그토록 간절히 나아가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 2) 여러분의 삶의 주변(가정, 일터, 교회, 지역사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나요?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눔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 또는 속원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